

입을만한 어린이 책

▶행복한 동물-미래로 가는 희망 버스7(공주영 지음·원정민 그림)='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질문이 든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나, 타자, 행복, 생명이라는 다소 묵직한 질문 앞에서, 미래 시대의 '우리'를 위해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과제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책. 분홍고래. 1만4000원.

▶감정레스토랑 (신은영 지음·메 그림)=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힘든 감정에 놓인 주인공 지음이가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감정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을 통해 들여다보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어린이 창작동화. 지음 이와 같이 감정 표현에 서툰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며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소원나무. 1만3000원.

▶맛나라 이웃나라(비카쉬 저스틴 쿠니 지음)=22명의 이주 배경 주민들이 각자 고국에서 먹던 음식과 그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는 책. 한국에 오게 된 과정과 지금도 생각나는 고향 음식에 대해 구술하고, 손 글씨로 한글 요리법을 적었다. 22가지 음식이 '메인 요리, 간식, 수프·탕, 국수·만두'로 엮였으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문화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창비. 1만8000원.

▶0시 4분(코니 팔름크비스트 지음·윤경선 옮김)=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다가온 이별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열두 살 소년 니콜라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며,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살아갈 용기를 선사해주는 책. 라임. 1만3000원.

▶감정 호텔(리디아 브란코비치 지음·그림, 장미란 옮김)=끊임없이 밀려왔던 밀려가는 감정을 내 마음이라는 '호텔'을 찾아오는 손님이 되어 이야기를 풀어 가는 책. 감정 호텔에는 날마다 다양한 감정이 찾아온다. 감정마다 주의할 점도 다 다르다. 작가는 자기만의 감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서 떠오르는 생각을 쌓아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책읽는곰. 1만5000원.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이 책!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다』



“어둠 속을 당당히 춤추는” 그 찬란함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다’ (달 펄름)는 시각장애인 에세이스트 조승리 작가의 첫 번째 단행본이다. 열다섯, 시력을 잃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자는 시간에 쫓기듯 각종 문학을 탐닉했고, 그렇게 내면화된 문장들이 묶여 뜨거운 감성 가득한 에세이로 만들어졌다.

작가는 장애인으로서, 마사지 사로서, 딸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크게 3부에 걸쳐 20여 편의 글로 담담하게 펼쳐낸다.

“열 가구 집성촌에 더부살이” 하듯 자라온 알싸한 어린 시절, “휴먼 다크가 어울리지 않고 코믹 시트콤에 가까”울 정도로 일렬한 모녀간의 대화 그리고 마사지 사로서 “누군가에게 고된 삶을 견뎌내게 할 의지”가 된 환황한 오늘날까지, 모든 이야기가 파편적이지 않고 하나의 줄기로 이어

진다.

저자는 “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시간의 점들을 모아 쓴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라고 했고, 출판사는 “저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불꽃을 여실이 지켜냈음을 보여준다”며 “삶은 저자에게 어둠을 주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축제로 만들어버린 셈”이라고 소개했다.

출판사는 또 “어둠 속을 당당히 춤추는” 이 책을 읽다보면 “인생이 쥐어주는 ‘지랄’에 맥없이 당하기보다 ‘누가 더 지랄맞냐 한번 해보자’며 그에 맞먹을 정도로 북을 치고 팽과리를 치고 싶을 것”이라는 평을 더했다.

이병률 시인도 추천사에서 “이 책을 읽고 슬펐고 뜨거웠으며, 아리고 기운이 났다는 사실을”, “그녀의 환절한 글 앞에서 내가 바작

쥘았다는 사실”을 전한다.

2023년 샘터 문예공모전 생활수필 부문 대상을 받은 저자는 마지막 장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지’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꽃다발을 받았다”는 시상식 때를 떠올린다.

“아침부터 향기 있는 꽃을 찾아다니던 이의 마음이, 서프라이즈를 해주려 했던 이의 마음이, 가게 문을 닫고 휴가를 쓰고 내게 달려오겠다는 이들의 마음이 향기가 되어 내게로 흘러들었다”며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며 새로운 꿈과 함께 자신감이 피어났다”는 저자. “나의 새로운 장래희망은 한 떨기의 꽃”이라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꽃송이가 되어 기뻐하는 이의 품에, 슬퍼하는 이의 가슴에 안겨 함께 흔들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만6800원.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저 불꽃을 볼 수 없다 해서 아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불꽃은 더 찬란하고 빛나기 때문이었다. - 본문 중 -

“지금 왜 이 인물을 읽어야 하는가”에 답하다

‘한국 인물 500 ‘나는 누구다’... ‘김만덕’·‘이회영’·‘홍범도’·‘단군왕검’ 출간

‘한국 인물 500’을 기획해 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삶을 순차적으로 펴내고 있는 일송북이 최근 2차분으로 김만덕을 비롯 이회영, 홍범도, 단군왕검 등 4권을 출간했다. 시리즈의 제목은 ‘나는 누구다’로 통일했고, ‘누구’에는 한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다.

지난 2월 1차분으로 선보인 치우천황, 백석, 사임당, 윤이상, 율곡, 퇴계 등 6권에 이어 이번엔 펴낸 4권은 ‘나는 이회영이다’, ‘나는 홍범도다’, ‘나는 단군왕검이다’, ‘나는 김만덕이다’다.

각 권 책에 실린 서문 ‘한국을 만든 인물 500인을 선정하면서’에선 시리즈의 기획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출판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며, 지금 우리 시대와 각자



의 삶을 더욱 바람직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며 한 인물의 삶과 시대의 정수를 인상적·효율적으로 전하고, 지금 왜 이 인물을 읽어야 하는가에 충분히 답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성향을 아우르는 한국 인물 500은 해당 인물의 육성으로 인간 개인의 생생한 정체성은 물론 세계와 첨단문명시대에서도 끈질기게 이끌어 나갈 반만년 한국인의 정체성, 그 본질과 특성을 들려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이회영이다’ (이덕일 지음)에서 저자는 삼한갑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 이회영의 삶과 내면, 사상을 현지 취재와 사료를 섭렵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들어가는 글’에서 “이회영의 삶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모든 것을 버린 삶’”이라고 평하며 “이회영의 삶, 자신의 온 재산은 물론 생애까지 민족해방과 인간해방의 제단에 바친 이회영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크기는 우리 사회, 작게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

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밝힌다. ‘나는 홍범도다’ (이동순 지음)는 글을 몰라 기록도, 행적도 없는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고려극장 관계자에게 구술해 삶을 정리한 ‘홍범도 일지’를 바탕으로 저자가 현지 취재와 연구를 보태 홍범도 장군이 직접 육성으로 회고하게 한 책이다.

‘나는 김만덕이다’ (박상하 지음)는 조선시대 여성 최초의 거상으로 우뚝 선 김만덕의 삶과 장사와 이익을 통한 사회 구제를 다룬다.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지금에 와서 그녀를 새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할 나위도 없이 그녀의 역사가 지금껏 곳곳에 살아남은 까닭”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에게겐 바깥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왕조시대에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좇아 오직 ‘나’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더한다.

‘나는 단군왕검이다’ (박선식 지음)에서 저자는 단군의 실체를 사료 비교 연구와 전래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연대기 순으로 복원해 놓고 있다. 각 권 1만4800원. 오은지기자



제주전통방식 그대로 맛을 낸~

고사리육개장 제주몸국

제주전통 요리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사리육개장과 제주몸국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1. 소자본으로 향토음식점을 창업하실 분
2. 메뉴 추가를 고민하시는 식당 사장님
3.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4.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운영하시는 분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